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신천박물관을 현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항일의 전구마다에서 나뭇기던 우리 혁명의 붉은기가 조금도 퇴색되지 않고 사회주의기치로 휘날리고있는것은 우리가 사상을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중시하였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적들은 반제반미계급의식으로 무장된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지의 힘을 제일 무서워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침략으로 생겨나고 침략과 약탈로 배집을 늘구며 비대한 침략의 원흉이고 흉물인 미제의 침략적본성과 야수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원수들에게 대하여 털끝만 한 환상이라도 가진다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

는것이 신천땅의 피의 교훈이라고, 혁명의 기본부기인 사상의식이 마비되면 혁명진지, 계급진지가 허물어지고 혁명을 망쳐먹게 된다고 하시였다.

지금 미제의 기만선전에 넘어가 미국을 평화와 인권의 수호자로 오인하고있는것이 세계의 현실이라고 하시면서 미제의 야수성과 교활성을 우리가 고발하고 결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굳건히 수호하고 주제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전당과 전체 군대와 인민을 반제반미투쟁의 전초선을 지켜선

계급의 전위투사들로 키우자는 구호를 들고 그들속에서 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이며 이 사업을 일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반제반미계급교양을 우리 당사사업의 중요방향으로 정하고 교양방법과 형식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특히 신천박물관과 같은 계급교양 거점을 잘 꾸리고 운영을 정상화하며 참관조직사업과 조건보장사업을 잘하는것과 함께 이동강의, 복수결의모임과 같은 여러가지 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의도대로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백두산혁명강군의 불굴의 정신력과

무진막강한 전투력을 과시함으로써 신천박물관을 하나의 계급교양대학과 같이 일떠세운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찬란한민족의 미래를 밝히는 태양의 가슴속에 멸적의 총창을 박는 심정으로 군인건설자들과 해당 부문, 신천군을 비롯한 황해남도인민들의 노력적위훈에 의하여 우리의 혁명진지, 계급진지의 사상적보루가 거연히 솟아오르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신천박물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계급교양의 전초선을 지켜가는 우리 당의 핵심, 직업적인 혁명가, 최고사령부의

붉은 선동원, 선전원으로서의 사명과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인민군인들과 인민들을 반미대결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서 혁명적분봉을 다해나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신천박물관건설에 동원된 전체 건설자들과 박물관의 일군들,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원수들에게 복수의 철추를 내리는 심정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의 불길울 새차게 일으킴으로써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더욱 빛내여갈 불타는 맹세를 다짐하시였다.

본사기자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지니고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실성을 지니고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신계군당위원회 서인국과 안혜인 신계군 읍사무소 사무장 탁명옥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통상을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에 지성을 다하였으며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시였다.

백두산혈통을 변함없이 이어나가는 길에 선군조선의 찬란한 미래와 만복이 있다는 신념을 지니고 해당화교류사 로동자 홍명숙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통상을 더 밝게 모시는 사업을 비롯하여 대성산혁명명사용관리에 순결한 향심을 바치였다.

트산군 시변고급중학교의 교직원, 학생들은 지난 10년간 수종이 좋은 8 900여그루의 나무와 꽃관목들, 1만 5 200여점의

판리도구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대성산혁명명사용에 보내주는 훌륭한 소행을 발휘하시였다.

백두산3대장군을 영현토록 높이 받들어갈 충정의 마음을 간직하고 서성구역종합식당 로동자 신정향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작봉마루에 올라 대성산혁명명사용을 더 잘 꾸리는데 진심을 바치였다.

철새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헌신하고있는 평안남도검찰소 책임검사 최창국은 10여년세월을 하루와 같이 백송혁명사적지 관리사업에 온갖 성의를 다하시였다.

사리원시 구천2동 30인민반 특유영예군인 박명국은 백두산선군정년발전조선청에 찾아가 화산식적지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후방물자도 안겨주면서 청년동력대원들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쟁책용위전에로 적극 고무하시였다.

성스러운 백두대지에 조국의 만년제부로

일떠서는 발전조선건설에 적은 힘이나마 바칠 일념에 평양시청년동맹위원회 지도원 윤송이는 가정에서 마련한 많은 자재와 물자를 백양전구에 보내였다.

묘향지도국 부원 정향미는 청년들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 내세워 줄 마음의 믿음을 깊이 새겨안고 건설장으로 달려가 일도 함께 하며 지원사업도 잘하여 돌격대원들의 전투적사기를 북돋아주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산하단위 로동자 오봉선도 어머니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전기문제를 푸는데 이바지해갈 애국의 마음안고 백두산선군정년돌격대를 물심방면으로 도와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시신 감사편지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친애반대높이 우러모시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갈 결의에 넘쳐났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5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시였다.

로씨야신문 《나호드젠스키라보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된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관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하시였다.

라오스신문과 네팔신문 《머저두르》,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혁명위생용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하시였다.

네팔 신문 《아르판》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신 소식을 게재하시였다.

에스파냐의 에베로통신, 미국의 신문 《열 누에보 헤랄드》와 VOA방송, 세네갈신문 《레포블리크》,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도이쉴란드반제연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43차 대사의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보도하시였다.

로씨야, 라오스, 네팔, 도이쉴란드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해방 70돌경축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조선해방 70돌경축 로모니아 전국준비위원회가 13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로모니아사회주의당 위원장 콘스탄틴 로마부가, 부위원장으로는 로모니아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바셀메 머겨부수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의 기간에 경축

연고모사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뜻있는 8.15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해방 70돌경축 앙골라 준비위원회가 13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제인 민파의 친선 및 반대성 앙골라 위원회 위원장대리 엘리이스 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도이쉴란드공산당 위원장 토르스텐 쇠비츠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7월 13일부터 8월 15일까지의 기간에 경축모임, 업적토론회, 영화감상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고기배들이 련속 먼바다어장으로 진출

22일 동해의 수심척 고기배들이 또다시 먼바다어장으로 향하시였다.

이날 손에손에 꽃다발을 들고 로모니아에 떨어진 인민들이 먼바다를 떠나는 용맹한 바다의 정복자들을 뜨겁게 바래주었다.

6월말에 먼바다로 떠난 원양선단이 이어 이번에도 출항한 어로선단은 연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수역에서 물고기잡이를 하게 된다. 수천근의 가공모선과 수심척의 고기배들로 무어진 어로선단에는 수산성과 신로원양수산면합기업소, 함경남도수산물리국 일군들과 양화수산업소들의 기술예술훈대원들도 함께 타고있다. 먼바다에서 어로공들이 발견없이 작업할수 있는 물질문화조건도 충분히 갖추어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산물생산을 늘이자면 먼바다물고기잡이를 잘하여야 합니다.》

어항목포에 의하면 낚지를 비롯한 주요물고기들의 어장이 동해의 먼바다에 형성되고있다. 수산성에서는 가까운바다에서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 식으로 어획고를 높이면서 먼바다에서의 대량한 집안어로를 조직하기 위한 면밀한 작전을 펼쳐왔다.

수산성 일군들이 각지에 내려가 집안어로를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 투쟁에 대대적으로 불려일으켰다. 일정별목표가 높이 세워지고는 나라에서 사회주의바다항기가 차원치게 할수 있도록 배려주는 사업, 함대설비의 현대화 등 과학적인 어로조건을 마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

단 준비를 갖추었다. 특히 락원수산업소에서는 먼바다에 나가기에 앞서 고기배들의 물고기잡이경험을 교환하고 있을수 있는 정황에 대처하기 위한 어로공들의 지상모의훈련을 조직하였다.

수산성에서는 먼바다에서 적극적인 어로조건을 벌릴때 대한 당의 수산정책을 높이 받들고 이번 집안어로를 조직하면서 어장을 차지한 고기배들이 잠은 물고기들 가공모선에서 처리하여 작업시간을 늘이고 연유소비를 대폭 낮출수 있도록 구체적인 작전을 펴려왔다.

먼바다로 떠난 어로선단의 고기배들은 수산성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과학적인 어항목포에 기초하여 집중과 분산의 방법으로 낚지와 공치, 밀치를 위주로 잡게 된다.

본사기자 전성삼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항하혁명사적지 련일 참관

【장강 7월 22일밤 조선중앙통신】뜻깊은 전승절을 맞으며 어머니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을 안고 수많은 참관자들이 항하혁명사적지를 향일 참관하였다.

7월에 들어와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을 비롯한 참관자들의 수는 하루 평균 2 000여명에 이르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혁명생애의 전기간 혁명투쟁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쏟으시였으며 제국주의자들과의 피어린 판가리 싸움과 준엄한 대결전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이룩해오시였다.》

항하혁명사적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가장 준엄한 시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를 조직하시여 전쟁, 전군, 전민을 전쟁승리로 불려일으키신 혁명사적이 깃들여 있었다.

참관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9(1950)년 12월에 계신던 수수산 집을 찾았다.

어머니수령님께서 이 농가에서 당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의 보고를 준비하시여 밤을 지새우신 로고를 되새기며 그들은 전전회의의 장소와 담화하신 집, 생몰지를 비롯한 여러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회덕골의 회의장에 들어선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세와 담판과업》이라는

력사적인 보고와 결론을 하시여 6개월간의 조국해방전쟁정황을 총화분석하시고 전쟁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과업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는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천리헤안의 애지를 지니신 철세위인의 숭고한 품도와 고매한 덕망을 다시금 가슴속에 새겨안았다.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동지께서 주체88(1999)년 6월 항하혁명사적지를 찾으시여 어머니수령님의 전승업적을 깊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데 대한 해설은 참관자들을 크나큰 격정에 휩싸이게 하였다.

전세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대를 이어 깊이 전하여 당의 선군영도과라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을 힘있게 다그쳐 10월의 대추전장을 빛나게 장식할 불타는 결의를 가다듬었다.